

도, '피지컬AI SW플랫폼' 조성 공모 정조준

총 736억 투입 메가 프로젝트사업설명회... 도, 다크팩토리·디지털트윈 등 12개 세부 과제 연계·9월 본격 시동

전북특별자치도가 정부의 국가전략 산업 육성 계획의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중 '협업지능 피지컬AI 기반 SW플랫폼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사업' 공모에 도정 역량을 집중한다. 자동차·조선·뿌리산업 등 제조업 기반 위에서 이번 사업을 지역 산업 고도화의 전환점으로 삼아, 공모부터 사업 안착까지 전 과정을 행간다는 방침이다.

도는 9일 전북테크비즈니스센터에서 산·학·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모 사업설명회를 열었다. 피지컬AI 생태계 조성 구상이 정부 공모 단계에 본격 진입함에 따라, 기업과 연구 기관의 참여를 돕기 위해 추진 방향과 절차, 과제별 준비 사항을 안내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번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7일 발표한 '2026년 경남·전북 AX(인공지능 대전환) 연구개발사업'

공모의 일환이다. 반도체·피지컬 AI·AI데이터센터 등 3대 국가전략산업 가운데 피지컬AI 분야를 구체화하는 첫 연구개발 사업이다.

공정 전체를 지능적으로 연결·운영하는 자율 지능 공장 플랫폼 기술을 담은 전북에는 2026~2030년 5년간 총 7,368억 원이 투입된다. 핵심기술 국산화·경량화 및 SW플랫폼 개발을 맡는 혁신도전형과 현장 실증을 담당하는 기술확산형 R&D에 5,012억 원, 장비 구축 1,480억 원, 연구클러스터 조성에 784억 원 등이 편성됐다. 특히 국비는 6,000억 원 가운데 5,150억 1천만원(85.8%)이 최종 반영돼 사업 추진 기반이 한층 강화됐다.

핵심 목표는 공장과 물류 시스템을 유기적으로 연결·운영하는 '자율 지능 공장 플랫폼' 개발이다.

서로 다른 로봇과 자동차 설비가 충돌 없이 복합 임무를 협력하도록 공

장 운영체제(SDF-OCS)와 표준 SW 체계를 마련하고, 다크팩토리 설계·구축, 디지털트윈, 물류 제어 시스템 등 12개 세부 과제를 연계 추진한다. 접수 과정은 서면·발표 평가와 종합 심의를 거쳐 8월 중 수행기관이 선정되며, 협약 후 9월부터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전북혁신도시 인근에는 정밀조립, AI 정밀검사, 유연제조 등으로 구성된 모듈형 기술실증 테스트베드가 조성된다. 실제 산업 현장을 재현해 기술 검증과 실증을 병행하고, 산·학·연이 협력하는 연구클러스터로 확장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이번 사업은 전북의 제조·모빌리티·농기계 등 기존 산업 기반을 AI 실증·확산 산업으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축적된 제조 현장과 기업 수요를 토대로 피지컬AI 기술의 적용·검증 기반이 마련되면,

전북은 첨단 제조혁신의 중심지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AI·SW 기업 기반과 연구개발·사업화 연계가 부족했던 지역 한계도 보완될 전망이다. 실증 중심 생태계가 구축되면 지역기업이 기술개발·사업화 주체로 성장하고, 후속 사업과 관련 기업 유치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양성화 전북자치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피지컬AI는 기존 제조 기반을 지능화·고도화해 지역 산업지도를 새롭게 그릴 핵심 미래 먹거리"라며 "철저한 대응으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전북이 '대한민국 피지컬AI 선도 도시'로 도약하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모 관련 자세한 사항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043-931-5948)으로 문의하면 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9일 진안문예체육관에서 이원택 도지사, 도내 여성단체 회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7회 전북여성대회를 개최했다.

도, 제27회 전북여성대회 성료

회원 500여명 참석... 여성 사회참여 확대·성평등 문화 확산 다짐

전북특별자치도는 9일 진안문예체육관에서 도내 여성단체 회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7회 '전북여성대회'를 개최했다.

"희망찬 전북특별자치도 함께하는 여성의 힘을 슬로건으로 열린 이번 대회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여성단체 간 소통·협력을 바탕으로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고,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여성단체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양성평등 실천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다짐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여성의 역할과 연대의 가치를 공유했다. 이어 열린 화합 한마당에서는 명랑운동회와 체육행사를 통해 회원 간 소통과 교류를 이어가며 결속을 다졌다.

도는 여성단체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상호 교류와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을 선도하는 전북 대표 여성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여성이 지역사회와 다양한 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포용적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이원택 전북자치도지사는 "27회째 이어져 온 전북여성대회는 여성들의 연대와 협력을 바탕으로 전북 발전을 이끌어 온 뜻깊은 행사라며 "전북특별자치도의 더 큰 도약을 위해서는 여성의 참여와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여성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마음껏 능력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성평등 문화 확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여성대회는 도내 여성단체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성평등 실천을 다짐하고, 상호 교류와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을 선도하는 전북 대표 여성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여경협 전북지회, 창립 27주년 기념식 열려

전북특별자치도는 전주 그랜드힐스에서 도내 여성기업인의 화합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 창립 27주년 기념식'이 열렸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기념식은 전북지회의 지난 27년 발자취를 돌아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여성기업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이원택 도지사와 박찬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윤석정 전북여성본부 총재, 김희수 도의회 의장, 조지훈 전주시장, 전북지회 회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도내 여성기업인 200여 명 한자리에... 여성기업 성장과 화합 다짐

모범 여성기업인 30개사 표창·지회 발전 공로자 5명 감사패 수여

이날 행사에서는 개회사와 축사에 이어 감사패 수여와 모범 여성기업인 표창이 진행됐다. 전북특별자치도 지사 표창을 비롯해 도 교육감, 전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전주시장, 익산시장 군산시장,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표창 등 총 30개 기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도내 여성기업 육성과 전북지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에 대한 감사패

수여식도 마련됐다. 감사패는 전북지회 고문과 유관기관 관계자 등 5명에게 전달됐다.

앞서 전북지회는 여성기업 주간을 맞아 1일부터 이틀간 도청 1층 로비에서 '여성기업 우수상품 초대전'을 개최했다. 도내 우수 여성기업 제품 홍보와 판매를 지원한 행사는 판로 개척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했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는 도

내 27개 여성기업이 참여하는 경제단체로, 여성기업인의 권익 신장과 경영 역량 강화를 위해 여성기업 주간행사 CEO 리더십 스쿨 운영, 판로 지원,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 오는 9월에는 군산에서 호남·충청권 여성 CEO 경영연수를 개최해 지역 간 교류와 판로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이원택 전북자치도지사는 "도내 기업의 40%를 이끄는 여성기업은 전북 경제의 '자부심'이라며 "여성기업과 함께 체감성장 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전북 경제의 대도약을 위해 여성경제인의 든든한 성장 파트너로서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 서울서 '올해의 건배주' 전시·홍보행사 개최

2024~2026년 선정 전북 대표 전통주 11종 전시·무료 시음 운영

전북특별자치도는 12일까지 4일간 서울 종로구 북촌로에 위치한 전통주 갤러리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올해의 건배주 전시 및 홍보행사'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도가 선정한 '올해의 건배주'의 전국 인지도를 높이고 브랜드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선정된 탁주와 약주, 과실주, 종류주, 리큐르 등 역대 올해의 건배주 11종을

수도권 소비자들과 관광객에게 선보인다.

행사 기간에는 전통주갤러리에서 전시·시음 부스를 상시 운영해 방문객들은 전북의 우수 전통주를 한자리에 살펴보고, 전통주 전문가의 설명과 함께 무료 시음을 즐길 수 있다.

전북 전통주의 흥미를 더욱 깊이 체험할 수 있는 특별 시음회도 마련된다. 첫날인 9일에는 익산등 한식당 '온정옥'에서 한식과 전통주를 함께 즐기

는 페어링 시음회를 열고, 10일과 12일에는 전통주갤러리에서 다과 페어링 시음회를 운영해 내·외국인 참가자들에게 전북 전통주의 매력을 소개할 예정이다.

11일에는 '술 플리마켓'을 열어 올해의 건배주 선정 양조장 5곳이 직접 참가하는 특별 행사도 진행한다. 익산 초이티브루어리와 정음 한국술도가, 남원 비견양조, 무주 덕유, 부안 유유양조가 참여해 제품 시음과 현장 판매, 양조장 브랜드 소개 등을 진행하며 소비자들과 직접 소통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행사를 통해 수도권 소비자와 외국인 관광객에게 전북 전통주의 우수성을 알리고,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전통주의 소비 확대와 도내 양조장의 판로 개척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선5기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이번 행사는 전북의 우수한 농산물과 맑은 물로 빚어낸 '올해의 건배주'를 수도권 소비자와 외국인에게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앞으로도 전북 전통주의 브랜드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양조장의 판로 확대를 위한 다양한 홍보와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소방, 119 불통 상태 막는 시스템 구축

전국 최초 24시간 무인 감시체계로 신고 공백 최소화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가 119 신고 전화 장애를 실시간으로 감지하는 전국 최초의 자동 장애감지 시스템을 구축하며 도민 안전망 강화에 나섰다.

전북소방본부(본부장 진형민)는 KT 서부(NW/법안)본부와 협업해 119 신고전화 네트워크 상태를 24시간 자동 점검하는 'ACTS(Auto Call Test System)'를 구축하고 7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시스템은 119 신고 전화가 정상적으로 연결되는지를 자동으로 확인하는 기술로, 일정 주기마다 시험 전화를 걸어 신고 접수망의 통신 상태를 점검한다. 시험할 과정에서 통화 연결 실패나 네트워크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즉시 상황실에 경보를 보내 장애 상황을 신속히 인지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특히 장애 발생 시 경광등과 스피커 등 시청각 알람 기능이 작동해 상황실 근무자가 즉각 대응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119 신고 접수 중단이나 지연으로 인한 안전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스템 구축은 2025년 11월부터 설계와 운영 준비를 시작해 같은 해 12월부터 2026년 6월까지 개발과 테스트 과정을 거쳤으며, 안정성 검증을 마친 뒤 7월부터 공식 운영에 돌입했다.

이번 ACTS 구축으로 전북소방본부는 119 신고망 이상 여부를 기존보다 훨씬 빠르게 파악하고 조치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대형 재난이나 긴급 상황에서 신고 접수 장애를 사전에 예방해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골든타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익산시 공고 제2026-2075호

‘익산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서수~평장2)건설공사’ 도로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주민 의견 청취에 관한 공고

“익산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서수~평장2)건설공사 를 위해 「도로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도로구역 결정(변경)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명 : 익산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서수~평장2)건설공사
2. 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덕기동, 삼기면 용원리, 규마면 갈산리, 용순리, 서고도리, 동고도리
3. 사업량 : L=7.29km, B=20.0~38.0m
4. 시행자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5. 사업기간 :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일 ~ 2028.05.
6. 열람기간 : 2026. 7. 10. ~ 2026. 7. 24.(15일간)
7. 열람장소 : 익산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익산시청 전실과
8. 제출장소 : 익산시청 건설과(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인북로32길 1(남중동))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 ☎(익)인반 063-850-9232, 익산시 건설과 ☎(익)인반 063-859-5534 또는 55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7월 10일 익산시장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